

# 완도군,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시동 걸었다



사진은 완도 해양치유센터 명상풀에서 수중 운동하는 모습

완도군은 지난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완도 해양치유센터에서 서울 서초구 주민들과 지역 민들을 대상으로 해양치유 프로그램 효능 검증 위한 '리빙 랩(Living Lab)'을 운영했다.

지난해 이어 두 번째 실시된 '해양치유 리빙 랩(인상 실험)'은 해양수산부 「농림해양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연구의 일환으로 완도 특성화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과

## 해양치유 프로그램 효능 검증 위한 '리빙 랩' 운영 해양치유센터 16개 프로그램 이용 참가자 만족도 ↑

원활한 해양치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됐다.

리빙 랩에는 약 6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완도 해양치유센터 내 16개 프로그램을 이용 '근골격계 통증 완화', '스트레스 완화', '피부 개선' 등 목적별로 운영했다.

특히 고려대학교 의료진들이 참여해 센터 2층 측정실에서 적외선 체열 진단기, 피부 측정기, 스트레스 측정기 등을 통해 참가자의 프로그램 체험 전후 건강 상태를 측정하며 해양치유 프로그램 효능 검증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팔라소 풀과 명상 풀에서 전신 이완과 근육통 해소 등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수중운동을 하고, 피부질환 개선에 효과가 있는 거품 테라피와 허리, 무릎 통증에 효과적인 스톤 테라피, 근육통 완화에 좋은 해조류 머드 랩핑 테라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한 참가자는 "해양치유를 처음 해 봤는데 한

번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걸 느껴서 꾸준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해양치유센터가 오픈하면 대박 나지 않을까 싶다"라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완도에서 나는 자원을 활용해 만들었다는 테라피 제품이 너무 좋았는데, 특히 비파 향이 나는 거품 테라피를 하고 나니 피부도 매끄럽고 기분까지 좋아졌다"라고 말했다.

군은 리빙 랩 운영을 통해 해양치유센터 개관 이전에 프로그램 및 운영 매뉴얼을 보완하고, 해양기후·해양문화 치유센터, 약산 해안치유의 숲 등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연계한 치유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현재 해양치유센터에서는 각종 설비 시운전과 함께 내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 중이며, 9월 말 완도군 직원들과 군민을 대상으로 단계적 시범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진도군, 공직자 대상 인구 변화 대응 교육 실시

진도군이 공직자 대상 인구변화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15일 인구교육 전문가인 (사)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 구본진 강사를 초청해 '인구변화의 이해와 미래 준비'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강의 내용은 ▲저출산·고령화 극복 방안 ▲인구변화에 따른 미래 예측 ▲지방소멸의 원인과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성 등, 재미있는 사례 중심으로 열린 강의를 펼쳤다.

군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금, 신혼부부 결혼 장려금, 난임 치료 지원,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등 다양한 인구시책을 지원하고 있다.

또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전입장려금,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을 비롯, 일자리, 주거, 교통, 장학사업 등 정주 여건 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군 산하 공직자들이 인구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해 활력이 넘치는 진도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 장흥군, 유관기관 직원 장흥 바로알기 투어 참가자 모집 오는 10월 24일 목재산업지원센터 등

장흥군은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24일 목재산업지원센터 및 장흥군 일원에서 '유관기관 직원 장흥 바로알기 투어' 행사를 추진한다.

'여사친, 남사친 동네친구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관내 유관기관에서 근무하는 지역의 청년들이 장흥군을 제대로 알아가고, 상호 만남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마련한 행사다.

이날 행사는 '지역 명소 탐방 및 특산물 활용 프로그램 체험, 조별 레크리에이션, 숲속 버스킹 등' 청년들의 취향에 맞는 내용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장흥군 소속 및 관내 유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25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남녀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모집인원은 남녀 15명씩 총 30명으로, 군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확인해 공문, 이메일, 방문 접수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행사가 장흥군에 직장을 둔 청년들에게 소중한 인연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청년들을 위한 시책은 물론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여 활력 넘치는 장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흥=김도영기자

## "강진쌀, 제주도 판매 100억 달성하자"

### 강진군, 활성화 방안 간담회 개최... "판매처 확보 노력 할 것"



강진군은 지난 13일 강진군농협통합RPC 관계자들과 함께 강진쌀 판매 활성화 및 발 전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간담회는 강진원 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 농협통합RPC 7명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의 강진쌀 판매 활성화를 위

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했다.

강 군수는 프리미엄 호평이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18년 연속 전남 10대 브랜드 쌀에 선정돼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와 관련 강진군과 농협통합RPC는 강진쌀 판매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

하기 위해 제주도 시장을 집중 공략함으로써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을 통해 2024년부터 5개년간 100억 달성을 목표로 노력하기로 했다.

강진은 옛 지명인 탐라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도의 옛 지명인 탐라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제주에서 기른 쌀이 마량향을 거쳐 중앙에 전상될 만큼 고대부터 제주도는 강진과 교류가 많았다. 강진군은 제주도와 비교적 가까운 지리적 장점을 활용해 제주도 쌀 시장을 집중 공략함으로써 강진쌀 이미지 제고 및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에 힘쓰기로 했다.

한때, 제주도는 수도권과 주요 소비처를 제외하면 강진 쌀의 가장 큰 시장 중의 하나였으나, 근래에 와서 타지역 쌀에 상당 부분의 시장을 잠식당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농협RPC와 강진군이 옛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힘을 합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강진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물류비 해결이 선결문제라고 판단하고, 해결 방안 모색과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쌀 농사는 강진 경제의 근간이 되는 산업으로 쌀값 하락은 강진 경제의 침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군과 농협이 힘을 모아 강진쌀 신규 판매처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 해남군 "청렴한 추석명절 함께 만들어요" 캠페인 진행

해남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4일 명절관 군수와 김차진 부군수, 공직자들이 참여한 출근길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발생할 수 있는 공직 비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해남 만들기를 위한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출근하는 군 공직자들과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제도에 대해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명절을 앞둔 시기에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한 선물 및 금품수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해남=기동취재본부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